

[10차 사파동행_세종호텔노조 농성장편] 노동자민중 투쟁승리 거리토론마당 2604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차사파동행_세종호텔노조 농성장편]을 4월2일 오후7시 세종호텔 앞 거리에서 열었습니다. 낮에는 포근했으나 저녁에는 쌀쌀한 저녁 날씨에 소박하지만 진지한 토론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정리해고이후 5년째이고,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과 파괴에 맞선 투쟁 15년째입니다. 사파기금의 15년 시간과 동일합니다. "희망을 모읍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찾아가는 현장연대"란 이름으로 수도권에선 '사파동행'을 그리고 지역에선 "사파작은희망버스"를 주로 집회 형식으로 열어왔습니다만, 이날 사파동행은 '노동자 민중 투쟁승리를 위한 거리 토론마당'으로 특이했습니다.

사회는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말았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은 사파기금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4월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서부지법 판사가 기가 막히게도 받아들이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정리해고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의 지부장입니다. 그런 이에게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사이 좋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시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신을 구금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은 그만큼 중요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투쟁이 모든 노동계급의 투쟁이 되고, 하나의 투쟁의 승리가 모든 노조운동의 희망이 됩니다. 세종호텔 투쟁은 원하던 원치않던 그런 투쟁이 되었습니다. 이날 10차사파동행은 그런 취지를 모아서 "운동의 쟁점, 그리고 세종호텔투쟁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란 주제를 놓고 1부 운동의 쟁점 4가지 집단토론과 2부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로 진행했습니다. 토론의 전체 좌장은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맡았습니다.

발언자들의 소중한 발언들, 그중에서도 더욱 주목하길 바라는 빛나는 단락들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명동 한복판 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인도 한편에서 펼친 거리의 토론장에서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였지만, 참석자와 발언자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토론을 할줄 몰랐어요"라고 탄박하듯이 농을 남겼지만, 거리에서 썬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아까운 내용이라 녹취를 풀어서 자료집을 만들어 함께 올립니다. 이하 발언 요약 중심으로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녹취록에서 확인하세요.

권영숙 사회자는 이렇게 서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의론자예요. 왜 이렇게 투쟁은 길고 장기 투쟁이 되어야 하는지, 왜 투쟁은 이기는데 이렇게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한지 고민할 거예요.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자들도요. 당연한 게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넣으면서 10년씩 5년씩 20년씩 심지어 싸워야 되는 건지, 정년 하루전에 사측과 합의 같지도 않은 합의를 하면서 떠나야 되는지, 이제는 전국적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위 사업장 투쟁은 고립을 면치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는 이날 토론마당의 목표를 이렇게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하는데, . 이견을 한순간에 해소하기보다는 이 쟁점들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 니가 옳다가 아니라 그 쟁점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 차이가 운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통점과 공동의 기반을 찾아가는 자리 "로 만들자고요.

1부의 1주제 "노동청년연대(노학연대)"는 70년 전태일이 말했던 노학연대로부터 80년대 전반 변혁운동기에 개념으로 만들어진 '노학연대'를 거쳐 2024년 윤석열탄핵국면에서 새로이 등장한 '노동청년연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김동성 발언자의 말, "노동조합 운동의 관행, 관성에 물들지 않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계신 동지들이 저는 어떤 그 변혁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습니다. 그렇게 현실 인식을 깊게 가져서 이후 노동자 운동에 이 시대 변혁 운동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채윤 발언자의 말, "바꿀 수 있으니까 나왔고 그래서 바꿀 수 있었던 건데 사실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지 바꿀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 현장에 연대하고 투쟁하는 청년이 되면서 바꿀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수윗 호수 발언자의 말, " 지금 있는 동지들이 본인들을 '노학연대'로 정체화하고 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는 명칭도 '연대 동지'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노학연대와는 조금 다른 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2주제는 예민한 쟁점인 당사자주의입니다. 권영숙 사회자에 따르면 " 있지 않았던 개념,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이고, "사회적 연대, 사회적 파업 연대, 희망버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당사자란 말이 오히려 부각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있죠. 사회 소수자들의 투쟁들과 그들 존재가 부각되면서 실제 당사자 아닌 자들이 문제를 사건을 농단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당사자가 중요하게 발견된 측면도 있죠."

이에 대한 박지수 발언자의 말, "당사자주의를 짧게 말하면 제3자 개입 금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3자를 설정하는 순간 당사자를 설정하는 순간 결국에는 사회라는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계속 더 이상 나뉘질 수밖에 없는 원자화가 된 개인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사자주의를 극복하고 당사자가 더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하 발언자의 말, "메신저에 집중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만 몰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애인만이 장애인 운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노동자만이 노동운동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치부해 버리면 연대자와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대 시민과 광장을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두 모인

동지들께서도 해고 노동자와 같은 당사자성을 갖고 해고 노동자들의 해방에 많이 깊이 공감하고 그 해방과 나의 해방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이시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주제는 "투쟁의 방법- 비폭력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보다 더 오래된 진부하다시피한 개념이고 언제나 운동에서 논쟁점이 됩니다. 권영숙 사회자의 말, "과연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 핵심의 질문은 이겁니다: 저항의 범위는 혹은 저항의 방식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임영휘 발언자의 말, "비폭력주의는 사실 허상이고 자본가들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자본가들은 항상 폭력적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대화로 하자 그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들도 당연히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폭력 비폭력을 나눌 건 아니고요."

채운 발언자의 말, "어제 교육청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이 밀쳐가지고 바로 응급차를 타고 누워 있었더니 경찰들이 구급차 쪽으로 와서 손이 까졌다고 밴드를 붙여 달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인데 저들이 먼저 그걸 어겨놓고서는 우리에게 그 합의를 지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 혐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소연 발언자의 말(현장 발언), "비폭력 투쟁, 비폭력 평화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냥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비폭력주의가 준법 정신이란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비폭력 평화 투쟁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투쟁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입장으로 또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폭력 투쟁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주제 "노동자투쟁에서 승리란?"에 대해서 권영숙 좌장은 쟁점취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투쟁에서 승리란 뭐냐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승리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고 희소하지만 귀중한 승리의 경험들도 약간씩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런 투쟁사례로 꼽는 청주노인병원 권옥자 분회장의 말,

"살아오면서 우연치 않게 투쟁을 세 번을 하게 됐어요..딱 하나 뭐가 필요하냐 하면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싸워주었을 때 내가 이겨 들어갔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함께하는 내 편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게 승리라고 봐요. 그래서 고진수는 이미 승리 했잖아요. 끝까지 갈 거잖아 멈추지 않을 거잖아. 청춘을 다 바치더라도 즐기면 이긴다. 이미 그래서 고진수 세종호텔은 승리했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요. 승리는 그냥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일 뿐이고 이미 우리가 860일 천막 농성을 하면서 투쟁해서 싸우던 그것이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보람 있었어. 그게 가장 신났던 거예요. 그러나 현장은 힘들어요". 박수정 발언자의 말, "그냥 단일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이 이 사업장들의 투쟁의 승리를 보고 우리도 싸울 수 있겠다. 노동자들이 싸우고 하면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법 판결로 많이 하니까 저는 이 사례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호텔 동지들이 이번에 정리하고 투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복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정리하고 투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라고..어쨌든 이런 사업장, 이런 노동자의 투쟁들이 앞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발디딜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노동자 투쟁의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득 공연자의 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노동을 자꾸만 폼하를 하고 지워지는 노동, 계속 숨기려고 하는 노동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참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정말로 이 자본주의 세상 말고 진짜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내딜 수 있는 용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걸 내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런데 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고민들이 사실 너무 배부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2부 종합토론, "세종호텔 투쟁 어떻게 싸우고 이길 것인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의 기조 발언, "15년의 투쟁, 제가 2001년도 세종호텔 입사하고 2012년도 파업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파업 이후부터가 저의 투쟁, 노동 운동을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종호텔에 있으면서 파업 이후 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실 첫 파업도 연대를 통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반쯤의 승리이지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소수 노조였고 우리 힘으로는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자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내지 못했을 때, 다양한 투쟁 사업장들 노동자들이 세종호텔 로비를 가득 메웠을 때,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뭔가 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겠다라는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나 당시 소중한었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매번 저희들도 같이 또 느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워 갈 수 있는 것, 또 그 연대들이 진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매번 저희들도 같이 또 느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워 갈 수 있는 것, 또 그 연대들이 진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최헌국 발언자의 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같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주변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알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투쟁의 어떤 꼭지점이 세워질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좀 다듬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투쟁을 모아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발언자의 말, "어떤 것이 승리냐? 안성에 두원정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작년 12월에 10년에 걸친 끌어왔던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선고가 났고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는데 이 노동조합에서 파산 관재인과 법원을 설득을 해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종호텔도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국은 이 연대와 또 실제로 조직된 노동들이 어떻게 여기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김영훈 발언자의 말,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아예 상황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뜻깊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한전 KPS가 힘세고 이렇게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다, 타협해 보라. 근데 타협하는 순간 그 삶이 나아지느냐 당신의 삶이 과연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오히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안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토론회를 마치면서 권영숙 사회자의 말이 토론의 요약이자 평가이자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우리 투쟁이 하나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투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사회적인 파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파업을 통해서 너의 싸움에 단지 내가 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연대한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변혁할 주체로 형성되어갈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누가 되어야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새로운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다고 봅니다."

2026.4.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